



해외양돈뉴스



※중국

돼지고기 값 급등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 연말 크게 상승했다.

최근 중국의 중국신문사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말 36개 중대형 도시를 대상으로 물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20일 기준으로 돼지고기 값이 한 달 만에 최고 8%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물가 단속의지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어서 향후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한 중국의 돈육 가격은 소비자가격 기준 3배 이상 폭등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내달 춘절을 앞두고 물가 폭등을 우려, 돼지고기 가격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양돈기지 건설 예정

중국 후베이성에 국내 최대의 양돈생산기지가 건설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중국 대규모 종합상사인 중량그룹은 최근 후베이성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중량그룹은 이를 위해 97억 위안(약 1조 2천억원)을 투자해 30곳의 현과 시에 대규모 양돈기지를 건설, 총 50만두를 사육할 계획이다. 또 후베이성 정부도 양돈장 건설을 위한 관련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올해 돈육 수출 최고 전망

올해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미농무부(USDA)는 지난해 말 미국산 농산물 무역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 육류 수입국들에 비해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어 올해 돈육 수출량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냉장, 냉동, 가공품을 포함한 미국산 돈육 수출량이 약 110만톤으로 수출금액은 약 27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돼지도 축두수가 증가하고 달러화 약세를 비롯해 미국산 생돈 가격의 하락 등이 돈육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본

일본산 돈육, 뛰어난 맛으로 높은 가격 유지 비결

일본의 돼지고기가 수입량 증가에도 뛰어난 맛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일본 축산정보에 따르면 07년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kg당 500엔으로 전년보다 3.9%가 오른 것으로 추산됐다. 월별로는 1, 2, 6월을 제외하고는 06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생산량과 수입량은 87만8천톤, 74만9천톤으로 06년보다 각각 0.6%, 3.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비량은 163만3천톤으로 일년전에 비해 0.3% 가량 감소했다. 그럼에도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것은 맛과 품질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수입육은 저가격, 국내산은 맛'으로 소비가 분리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품종개량과 사료, 사양관리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국산 돈육의 맛이 좋아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식업 일본 국내산 돈육 비중 55%

일본 외식업체의 절반 이상은 일본 국내산 돼지고기

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일본 축산진흥단이 06년 외식산업식육소비구 성실태를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외식업체의 55.3%가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미국 10.9%, 캐나다 8.8%, 덴마크 8.4%, 멕시코 3.1%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국내산 돈육 구입 비중을 보면 서양요리점이 78.4%로 가장 높았으며 유흥음식점 65.8%, 일본음식점 57.7%로 대부분 업종에서 국내산의 비중이 높았다. 부위별 구입비율은 등심과 사태가 대부분으로 각각 32.6%, 30.2%를 차지했다.

※ 러시아

남서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극성

러시아 남서부 지역과 인접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체첸지역에 지난해 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며 현재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루지아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에서 지난 1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했다. 이에 따라 7마리가 감염됐으며 22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 E U

자돈가격 하락, '04년 이후 최저

유럽연합(EU)의 자돈 평균가격이 1마리당 30.03유로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EU의 지난해 9월 자돈 평균가격은 1두당 30.03유로로 전년동월대비 28.7% 하락하고, 과거 3년간 평균과 견줘서도 22.4% 하락한 것으로 발표해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역내 최대 생산국인 독일이 전년동월대비 32.8% 떨어진 1두당 35.12유로이며, 스페인은 전년동

월대비 48.3% 떨어진 1두당 19.15유로로 큰 폭 하락했다. 또한 자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덴마크와 네덜란드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2.0%, 44.4% 떨어졌다.

이처럼 자돈 가격이 하락한데는 돼지고기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 주요국에서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평균 자육가격 또한 전년동월대비 7.5%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사료가격이 지난해와 견줘 35%를 웃도는 등 비용상승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세계

곡물소비량 > 생산량, 기말재고율 최저 전망

올해 세계 곡물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해 기말재고율이 사상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농무부(USDA)의 세계 사료곡물 수급동향에 따르면, 2007/08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0억7,521만톤, 소비량은 2.8% 증가한 21억254만톤, 기말재고량은 8.1% 감소한 3억909만톤, 기말재고율은 1.8%p 감소한 14.7%로 전망됐다.

옥수수 세계생산량은 7억6,672만톤, 미국, 멕시코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24.1%, 5.5%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7억7,272만톤으로 미국의 에탄올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소비량이 크게 늘 전망이다.

곡물가격은 1월 중순 옥수수 C&F(운임포함가격)은 톤당 332달러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51.6%, 전월대비 10.3% 상승한 것이다. 대두박은 1월 중순 톤당 513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곡물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곡물가격 상승과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걸프만 기준 2006년 12월 해상운임은 톤당 53달러였으나 2007년 12월에는 110달러 수준으로 급등했다. 한편 올 1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3월물 인도분 옥수수는 전년동월대비 31.2% 상승한 톤당 202달러에 거래됐다. **양동**